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5. 감정과 이성 ①

감명 깊은 설법에 관해서

붓다의 설법 가운데서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외에 현대의 산업사회를 호응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이 주목해야 할 몇 개의 설법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수 많은 이 스승의 설법 가운데 있어서도 자연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구별은 있다. 앞에서 설명한 근본설법과 같은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사람들에게 따라서 감명(感銘)이 특히 깊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별은 사람에게 따라서 다르며 또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하여도 좋을 것이다.

붓다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가운데서 어떤 설법에 더 깊은 감명을 얻는가 하는 것은 역시 사람의 인격과 상황에 따라서 달랐으리라고 생각된다. <장로계경(長老偈經)>이나 <장로니계경(長老尼偈經)>은 이 스승을 아주 가까이 모셨던 남녀의 제자들이 때와 기회를 따라서 그 감회를 토로(吐露)한 것을 적은 것이다.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스승의 가르침의 추억은 여러 가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대들 의복에 관해서 걱정한 일이 없는가. 장식(裝飾)을 즐겨워 한 일은 없었는가. 계덕(戒德)의 향기는 그대 스스로 발산(發散)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이 발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한 구절을 그 경전 속에 남긴 이를 읽는 한 비구는 생각건대 이러한 가르침으로서 설법한 이 스승의 말씀을 몸으로 받아들이며 감명 깊게 수지(受持)하여 그것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라고 짐작이 된다.

“하루의 광음(光陰)은 반드시 헛되게 이것을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쓸데없이 하룻밤을 낭비하는 것은 그대의 생명을 감소(減少)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리라.”

이 한 구절을 그 경전에 남긴 슈리만다라는 장로(長老)에게 있어서는 아마 스스로 방종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 스승에 의해서 받은 이 권고의 가르침이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의 말로서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또 잘 알려진 슈니타 장로의 경우 그는 오물(汚物)의 정소부(淸滌夫) 노릇을 하고 있었다. 언젠가 이 스승의 발 밑에 엎드린 그에게 스승은 “오라, 비구여” 하면서 그를 불렀다. 그때의 그 말 한마디는 그에게 있어서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말이였다. 이것을 그는 이 경전 속에 “그리고 그 후부터, 비민(悲愍)의 스승, 일체세간(一切世間)의 자애자(慈愛者)는 나에게 대

해서 ‘오라, 비구여’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수계(受戒)였었다”라고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후세의 불교인에게 있어서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떤 시대의 사람들은 계(戒)의 가르침이 이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가장 인상깊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한 일도 있었다. 또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비유의 가르침이 매우 감명 깊게 생각되었다고 말할 것도 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에(眞)에 관한 경계의 가르침이 수 많은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게 생각되었다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원한에 대해서 원한으로써 갚는다면 그 원한은 언제까지도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한 구절이 마치 자기 한 사람을 위한 교훈인 것처럼 가슴깊이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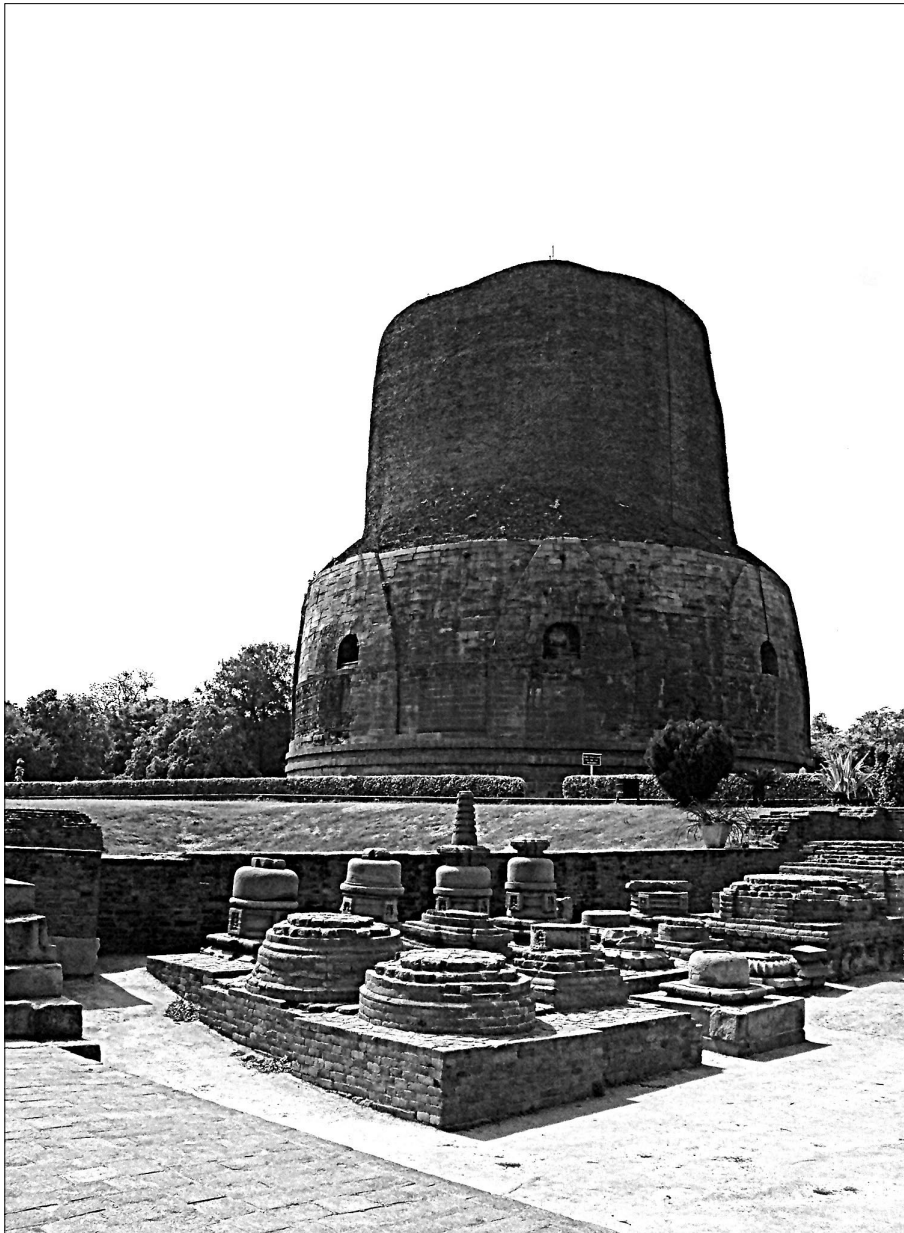
이와 같이 때에 따라 사람에게 따라 이 스승의 설법의 어느 것에 역점을 두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다르다. 물론 이런 것 가운데서 근본설법이 차지하는 위치는 부동(不動)한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설법에 관해서는 어느 것이 무거우며 어느 것이 가벼우냐를 결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물며 감명 깊은 것은 어떤 것이나, 감개가 두터운 것은 어느 것이나, 하는 것 같은 문제는 때와 사람에게 따라서 무한히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붓다의 설법 가운데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며 어느 것이 더 감명 깊은 것인가 하는 것은 결코 경솔하게 말할 성질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려를 하면서 그래도 예부터 유명한 설법으로서 알려진 것 외에 오늘날의 우리들로서 특히 새롭게 끄집어 내어 말할 수 있는 설법이 있는가 라고 재촉을 받는다면 나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경전들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보려고 생각한 다.

감정(感情) 처리의 문제

그 하나의 경전은, 붓다가 슈리바아스티(사위성)의 교의 가원정사(祇園精舍)에 있었을 때의 일을 담고 있다. 스승은 어떤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듯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질문을 시작하였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듣지 않는 범부(凡夫)는 낙수(樂受)(상쾌한 느낌)도 느끼며, 고수(苦受)(상쾌하지 않는 느낌)도 느끼며, 비고비락수(非苦非樂水)(상쾌도 불쾌도 없는 느낌)도 느낀다. 가르침을 받은 성제자(聖弟子)도, 역시 즐거움을 느끼며, 괴로움을 느끼며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설법지 사르나트에 있는 다메크 대탑. 아쇼카왕이 부처님의 첫 설법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했다.

감정을 느낀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받는 성제자와 가르침을 듣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점에 있어서 다른 것일까?”

이 질문은 일종의 응용문제(應用問題)였다. 틀에 잡힌 듯한 교리문답(敎理問答)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대개 즉시 대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스승은 그 외에 그러한 교리문답을 토대로 해서 응용문제를 시험해본 일도 자주 있었다. 그러한 시험에 있어서는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덕이시여, 우리들의 법은 세존을 근본으로 합니다. 원컨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을 설법해 주십시오.”

대답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말로써 스승의 설법을 기다렸다. 이 시험적인 질문에 있어서 제자들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리고 형식에 따라 스승의 설법을 원했던 것이다. 그것에 대한 붓다의 설법은, 대개 다음과 같았다.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고(苦)인 수(受)에 접하여 걱정하며 괴롭으며 두려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어

찌할 바를 모를 것이다.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수(受)를 느낄 것이다. 몸에 속하는 수(受)와 마음에 속하는 수이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여, 한 개의 화살에 맞으면, 또 다시 두 번째의 화살을 맞는 것과 같으니라.”

그리고 붓다는 이때까지 가르침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감정의 처리방법을 자세히 설법하였다. 그들이 고수(苦受)에 접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쾌가 생기며 노여움이 생긴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언제까지도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을 괴롭힌다. 또 만일 그들이 낙수(樂受)에 접하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즐겁다는 감정이 생기며, 집착의 감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감정도 또한 언제까지나 그들을 사로잡으며 그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걱정하며 괴롭히며 두려워하며 가슴을 치면서 울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느낌의 작용이 어떻게 하여 생겨나며 어떻게 하여 소멸하며 어떠한 불행을 동반하며 어떻게 하여 거기에서 이탈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신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염주가 108에 그치는 이유

문 세상에서 정토(淨土)를 수행(修行)하는 자가 그 부처님께 예불을 하면서 꼭 십삼(十相)을 분리하며, 그 십호(十號)를 송념(誦念)하되 염주(念珠)를 세며, 그것을 계산하되 염주의 숫자 세기를 꼭 백팔(百八)에 그치는 것이 무슨 때문이며, 무슨 가르침의 자취가 이와 같이 번거로운가.



답 그렇지 않다. 마음이라는 것은 만 가지 형상의 모범이니, 우·모·인·개(羽·毛·鱗·介)와 횡·수·인·침(橫·豎·飛·沈)이 형체에 그 마음을 받지 않음이 없는데, 진실로 천지가 그를 그렇게 되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그 마음의 선악(善惡)·사정(邪正)·염정(染淨)·호추(好醜)의 갖가지 업연(業緣)을 따라서 만품(萬品)이 각각 그 유(類)로써 응한다. 이것이 사생(四生)·구류(九類)·범성(凡聖)이 나누어지는 까닭이다.

이미 마음이 모범(模範)이 되어 형색(形色)을 만품(萬品)에 명명하였다면 마음이 부처를 간직하면 부처의 모범이 됨은 필연적인 것이다.

도(人道)이다. 그 품류(品類)의 고하(高下)가 일백 팔(一白八) 등급(等級)의 많음에 이르는데, 삼계는 한 마음을 따르지 않음으로 삼계가 조성된 것이다.

마음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지은 것도 또한 차별이 있는데, 마음은 인(因)이고, 지은 것은 과(果)이다.

백팔(百八) 염주(念珠)라는 것은 마음 속에 백팔 번뇌를 가리킴이며, 구슬(珠)이라는 것은 다름이고, 염주를 꿰는 끈은 습기(習氣)가 이어짐이니, 마음 속에 번뇌가 서로 연속하는 것은 대체로 습기가 이어져 잊지 않음을 인함이고, 환전(轉)하여 다함이 없는 것은 윤회가 쉬지 않음을 표시함이다.

108염주는 마음 속 '108번뇌' 의미 다함없이 歡轉함은 쉬지 않는 윤회라

그러므로 마음이 간직하고 눈으로 보고 예불하고 생각하는 사이에 그 상호(相好)가 분별하며, 그 모범을 자세히 살펴 정래 부처님 상호의 정인(正因)을 이루고자 함이니, 어찌 부질없는 일을 좋아하여 그것을 하였는가.

더구나 마음을 정토(淨土)에 간직하면 심토(心土)가 스스로 청정하고, 마음에 부처를 간직한다면 심불(心佛)이 자연히 나타나 피차(彼此)의 불토(佛土)가 둘이 없음(無二)으로 융화되어 정토의 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와 반대로 한다면 삼계(三界)의 업인(業因)으로 생사의 윤회에서 해탈할 인유(因由)가 없으리라.

경(經)에 말하기를 “남자를 좋아하면 남자가 되고, 여자를 좋아하면 여자가 된다” 하니, 또한 이를 말미암는 것이다. 또 염주를 세는 것으로써 불호(佛號)의 염송(念誦)을 계상하는 것은 이도 또한 부처님의 방편이니, 일(事)에서 그 이치를 밝혀 그것을 배우는 사람이 가까운 것으로부터 먼 것에 이르게 하심이다.

무릇 세상에서 말하는 ‘삼계’ 라는 것은 하늘·지옥·귀신·축생·수라·인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이 염주를 지니게 하여 매혹하지 않고, 그 백팔 번뇌의 일어남을 쳐서 한결같이 염불(念佛)로써 제압하게 한 것이다. 순환왕복(循環往復)하면서 집되게 쓰는 마음이 없다면 ‘보리’를 이뤄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되어 삼계의 업인(業因)이 스스로 소멸하고, 보리의 묘과(妙果)에 날로 진보할 것이니, 부처님의 권면하고 염려하심이 여기에 극진하신 것이다.

한 과보의 뒤에는 내 마음의 원(願)이 저 부처님의 원력(願力)으로 더불어 서로 함영(涵映)함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나르는 날개와 물을 따르는 외로운 뚝단 배와 같이 잠깐 사이에 바로 왕생(往生)함을 의심할 여지가 없으리라. 누구라도 그걸 저지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깊고 묘하며 자세함을 다함이 이와 같은데 노력하지 않아야 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제15, 종지용출품(21:13)	제22, 속루품(04:36)
CD02-제2, 방편품(46:5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6, 여래수량품(21:15)	제23, 약왕보살보살품(23:10)
CD03-제3, 비유품(54:48)	제10, 법사품(18:39)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24, 모음보살품(16:12)
CD04-제4, 신해품(30:24)	제11, 건보품(22:19)	제18, 수화공덕품(13:23)	제25, 관세음보살보살품(19:26)
제5, 약초유품(16:08)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6, 다라니품(10:07)
제6, 수기유품(17:13)	CD07-제13, 권지품(10:07)	제20, 상발경보살품(13:15)	제27, 묘점염왕본사품(14:46)
CD05-제7, 화상유품(51:14)	제14, 인력행품(27:27)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인불상